

종종 아내와 행사에 참여하면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는 했다.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말에는 ‘남자는 이런 곳에 잘 오지 않는다’ 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나 역시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집안일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심지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집안일을 잘못하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타박하고는 했다. 어린 나이에는 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그런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 역시 아버지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백수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해야 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 가족들은 집안일보다는 일을 하는 것을 원했기에 탐탁지 않아 했다.

그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데이트 비용도 서로 번갈아 가며 부담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로였다. 오랜 자취 생활을 한 아내에게 집안일의 기준은 꽤 높았다. 나는 처음부터 그 기준을 모두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했다. 다만 자잘한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와도 집안일 문제에 다투기보다는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았다. 아내는 내가 서툰 부분을 이해해 주고, 나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맡는다. 이를테면 아내가 요리를 하면 내가 설거지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아내가 특히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맡는다. 그렇게 우리는 합을 맞춰나갔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입장인 사람도 있다.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입력해 줘야 한다거나, 차라리 바깥일에 집중하게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사실 나 역시 한 우물만 파는 성격이었다. 이십 대에는 진로를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 다른 일에는 서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도 아내보다 집안일에 서툰 편이다. 그렇다고 가장으로서 바깥일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정보를 찾는 일을 잘한다. 아내는 새로운 경험에 관심이 많고, 나는 그런 정보를 찾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찾아 함께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내가 좋은 남편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좋은 남편과 아내라기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파트너일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능력과 상황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다. 남편이라서 맡는 일도, 아내라서 맡는 일도 없다. 그저 서로에게 더 잘 맞는 역할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두고 ‘좋은 남편’ 이라고 말할 때마다 조금은 어색하다. 그보다는 ‘좋은 동반자’ 라고 칭찬하는 사회가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에 더 가까운 사회일 것이다.